

요약

고환율 지속 및 추가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달러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달러보험은 단기적인 환차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상품이 아니며, 환율과 해외 금리의 변동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단기적인 환율상승에 편승한 판매 확대는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중도해지와 소비자 민원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는 판매 단계에서 적합성 확인과 설명을 강화하고, 판매 후에도 시장 변화가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하며, 유지율과 해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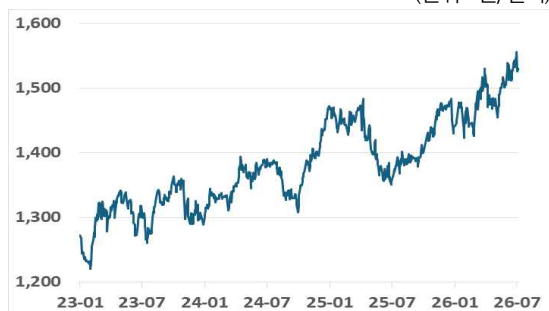
○ 고환율 국면 장기화 및 추가 환율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가 커지면서 최근 달러보험¹⁾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였음(〈그림 1〉, 〈그림 2〉 참조)

- 원/달러 환율은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3월 초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으며, 이후 중동 정세 불안, 국제유가 상승, 한·미 금리차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동성 또한 확대됨
- 이러한 고환율 국면의 장기화 전망으로 환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6년 1/4분기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약 4.7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상회하는 수준임
- 소비자가 상품의 주된 목적을 오인하거나 보험계약에 수반되는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²⁾

○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달러보험 시장 확대에 내재된 금융소비자 측면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그림 1〉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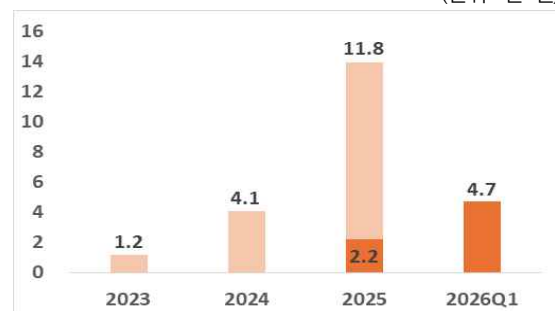
(단위: 원/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2〉 달러보험 판매 현황

(단위: 만 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1) 이는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이 미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외화표시 보험상품으로,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됨

2)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소비자를 대상으로 달러보험 가입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2026. 1. 15.)하였으며, 최근 주요 14개 보험사 재무 담당 임원(CFO) 대상 간담회(2026. 6. 16)를 갖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권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함

○ 달러보험은 단기적인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수단이 아닌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으로, 계약 기간 전반에 걸쳐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됨

- 달러보험은 일반 원화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질병 등의 위험을 보장하거나 연금·저축을 통해 장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환차익만을 기대하고 가입할 경우 상품의 본래 목적과 수익구조를 오인할 소지가 있음
 - 납입보험료 중 일부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고 나머지만 적립·운용되므로,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납입보험료 전액에 환율상승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달러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5년 또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상품이므로,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원금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달러 지출에 대한 계획 없이 환차익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달러보험은 달러예금이나 달러 자산 직접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낮음(〈표 1〉 참조)

〈표 1〉 달러보험과 주요 달러자산 운용수단의 특성 비교

구분	달러보험	달러예금	달러표시 금융자산 투자
목적	사망·질병 등 위험보장, 노후소득·목적자금 마련	달러 보유 및 이자수익	환차익 및 투자수익 추구
비용	높음(위험보험료·사업비 등 차감)	낮음(환전 수수료 등)	보통(환전·거래 수수료 등)
주요 수익원	적립이율 및 환율 변동	예금이자 및 환율 변동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환율 변동 반영 대상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적립금 및 보험금	예금 원리금 전액	투자자산 평가액 전액
자금 회수	어려움(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	용이(중도인출 및 해지 가능)	용이(시장가격으로 매도 가능)

- 외화표시 장기상품인 달러보험은 계약기간 전반에 걸쳐 환율 변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가입 당시 환율만으로 상품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환율 경로에 따라 보험료 부담과 원화 환산 보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기간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동일한 외화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해 필요한 원화 금액이 증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계약 유지 여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 달러 기준 보험금이 동일하더라도 원화 환산액은 감소하여 가입 당시 기대했던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달러보험은 환율뿐 아니라 해외 금리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으며, 특히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 금리 하락 시 적립이율이 낮아져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 기대한 수준보다 저조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달러보험의 적립금을 주로 미국 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 등 달러표시 채권에 운용하며,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이율은 이러한 운용자산의 수익률과 해외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됨
 - 따라서 가입 당시의 높은 해외 금리를 전제로 제시된 적립이율이 보험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음
 -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만기도래 자산을 대체하는 신규·재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적립이율도 하락하면서 적립금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달러보험에 내재된 소비자 위험과 이에 따른 계약 유지 부담 및 중도해지 손실 가능성은 과거 환율 상승기에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해지 금액이 늘고 환급률이 낮아진 사례에서도 확인됨

- 최근 사례인 2024년에는 외화보험 신계약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해지 금액과 환급률 지표에서는 계약 유지 부담과 중도해지 손실 위험이 함께 드러남(〈그림 2〉, 〈표 2〉 참조)
 - 2024년 외화보험 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나, 해지 금액은 50.4%, 건당 평균 해지 금액은 56.5% 증가하여 고액 계약을 중심으로 해지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4년 해지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매 분기 90%를 하회하였으며, 특히 보장성 상품의 경우 분기별 평균 환급률이 59.8~68.0% 수준에 그쳐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표 2〉 외화보험 계약 현황(2023년~2024년)

(단위: 건, 억원, %)

연도	분기	신계약		해지계약		해지계약 평균환급률			보유계약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평균	보장성	저축성	보장성	저축성
2023년	1	3,354	1,547	7,472	1,159	84.0	52.5	107.2	18.1	81.9
	2	1,689	1,216	7,481	1,250	84.5	55.1	107.3	18.3	81.7
	3	3,101	1,596	6,759	1,223	82.3	54.4	103.5	18.4	81.6
	4	4,409	3,278	6,749	1,377	84.5	57.7	104.1	18.0	82.0
2024년	1	4,854	2,365	6,698	1,554	85.8	59.8	103.5	17.7	82.3
	2	7,449	2,440	6,490	1,656	87.0	61.8	101.2	17.3	82.7
	3	14,696	7,632	6,048	1,922	87.9	61.9	100.9	15.8	84.2
	4	13,771	4,375	8,113	2,400	88.9	68.0	100.4	15.4	84.6

자료: 차규근 의원실(2025. 2. 4.),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보험회사는 고환율 국면에서 증가하는 달러보험 판매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계약 유지와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 단계에서의 적합성 확인 및 설명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판매 이후의 계약 유지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달러보험 시장 확대는 외화표시 상품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환율 상승 기대에 의존한 판매 확대는 향후 해지율 상승과 민원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에서 달러보험이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가입 목적 과 위험감수 능력을 확인하고, 상품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입자의 향후 달러 지출 계획, 계약 유지 가능성,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환율 하락, 적립이율 하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복수의 시나리오를 통해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함
- 나아가 판매 이후에는 계약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안내하고 유지율과 해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시장환경 변화로 계약자의 부담 또는 수령 금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 시 해당 계약자를 선별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판매채널·상품·가입자군별 유지율과 해지율, 민원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고객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상품구조와 판매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